

주영한국문화원, 옥스퍼드 대학서 '한인의 미래' 논하다

주영한국문화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한국의 날' 축제 개최

-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강연
- 옥스퍼드 대학 재학 및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 진행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이하 문화원)은 옥스퍼드 한인 대학원생 회장단과 공동으로 6월 8일(토)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2회 '한국의 날' 축제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함께 준비해 뜻깊습니다. 한국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황금열쇠는 바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때 새로운 미래를 찾게 될 것입니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 주영한국문화원은 영국 주요 대학과 협력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한국의 날'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의 날' 축제는 영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의 문화, 음악산업, 케이팝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새로운 미래 담론을 제시하는 행사다.

□ 옥스퍼드 '한국의 날' 축제는 사전 참가 신청이 행사 시작 일주일 전 모두 마감되는 등 시작하기 전부터 큰 기대감을 모았다. 옥스퍼드 '한국의 날' 축제는 문화 외교, 한류 산업, 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저명한 연사들의 강연과 전통음악 공연,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진행됐다.

○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디지털 미래의 형성에서 문화 외교의 역할’ △왕정균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소장은 ‘한국 금융기관들의 영국 진출’ △ 김종순 한식 브랜드 YORI(요리) 대표는 ‘한식으로 한류, 한류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을 들은 참가자들은 한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의미 깊다며 행사 참가 소감을 전했다.

○ 신계영 옥스퍼드 경영학과 박사학생, 이서우 화학과 박사학생, 배종환 옥스퍼드 MBA 졸업생, 김민진 옥스퍼드 NHS 가정의학과 의사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은 ‘한인의 미래’를 주제로 재학생과 졸업생, 현지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양한 담론을 제시했다.

□ 100여 명의 행사 참가자 중에는 옥스퍼드 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케임브리지 대학, 런던 임페리얼 대학 등 영국 각지 우수 대학의 재학생과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옥스퍼드 한인 대학원생 회장단 회장 김강건과 부회장 정성환은 “옥스퍼드 ‘한국의 날’ 축제를 통해 세계적인 석학의 도시 옥스퍼드에서 차세대와 전문가가 모여 한국문화를 즐기고 영국 주류 사회 진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진행한 소감을 밝혔다.

□ 문화원은 연중 4~5회의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영국 주요 지역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옥스퍼드 ‘한국의 날’ 축제 개요
- 2. 옥스퍼드 ‘한국의 날’ 축제 행사 사진

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s.sun@kccuk.org.uk)
		담당자	실무관	정윤서 (ys.jung@kccuk.org.uk)

붙임1

옥스퍼드 한국의 날 축제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일시 : 2024년 6월 8일(토), 14시-20시
- 행사장소 : 영국 옥스퍼드 피츠휴 오디토리움(Fitzhugh Auditorium)
- 주최/주관 : 주영한국문화원, 옥스퍼드 한인 대학원생 회장단
- 참가대상 : 옥스퍼드 및 영국 대학생,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

붙임2

옥스퍼드 한국의 날 축제 사진

행사 사진



전통음악 공연 사진



주영한국문화원장 선승혜 원장 강연 모습



한국은행 런던 사무소장 왕정균 소장 강연 모습



학생 라운드 테이블 사진